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실 설치 철회를”

이학수 도의원,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향후 실질적인 서울사무소 역할로 전북 이전 효과 상쇄”

〈속보〉전북도의회는 22일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효과를 상쇄시키는 서울회의실 설치를 즉각 철회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본보 6월 22일자 1면)

이학수 도의원은 “지난 6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올 2월, 전북 이전을 완료했지만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서울 강남 사옥에 전용 회의실을 갖춘 사무실 설치공사를 실시하며 서울 잔류를 위한 꾀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회의실 설치에 “곧 거점 사무실 설치와 다를 바 없으며 이는 기금운용본부의 완전한 전북 이전을 거부하는 처사이자 대통령 공약인 혁신도시 시즌2에도 역행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단순한 회의공간을 넘어 금융권 관계자들과의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공간으로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향후 실질적인 서울사무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효과를 상쇄시키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기금운용본부의 공단분리화에서부터 서울 사무소나 스마트워크 센터 설치 용역안, 전북 이전 원점 재검토와 본부 공사와 주장까지 기금운용본부의 완전한 전북 이전을 흔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감지돼 왔다”며, “현재 공사 중인 서울사무실 설치에 이러한 향후



“추경 합의 불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4당 원내대표 회동의 추경 합의 불발과 관련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사와 움직임과 연결될 소지가 대부분기 명했다. 재만,백경태,양호호,이현숙,정진세 의원 외
에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 한편, 제안자는 이학수,강용구,김현철,박 4인이다. /김진성 기자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앙당 후원회 부활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당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재석 255인, 찬성 233인, 반대 6인, 기권 16인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된 정당 후원회를 부활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중앙당이 자체적으로 참진위를 포함해 후원회를 두도록 했다. 후원회 모금기준 한도액은 폐지 전보다 낮은 총 50억원으로 했다. 개인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정했다.

국회는 또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안한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도 재석 251인, 찬성 249인, 기권 2인으로 채택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회동에서 결의안 채택에 합의한 바 있다. /뉴스

이수혁 전 독일 대사, 민주당 비례대표직 승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비례대표 국회 의원후보자 명부 추천순위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15번인 이수혁 전 독일대사(사진)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평생을 살아오며 해온 것은 외교·안보 분야다. 국회의원이니 외교 분야 뿐 아니라 협치, 민주당의 발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5년 업무 수행을 위해서 미국이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1987년 주미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며 남북한 간 비공식 외교 경로의인 ‘뉴욕 채널’을 최초로 개설한 인물이다. 같은 해 제네바 4차회담 성사를 이끌었다. 한반도 비핵화, 대북관계, 통일정책, 대미외교, 국가안보를 아우르는 전문가로, 독일 통일과정을 깊게 연구했다.

1999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외교통상비서관으로 발탁됐고, 2003년 6차회담 초대 수석대표를 역임했으며, 2005년에는 주 독일대사를 맡았다. 2007년에는 국가정보원 제1차장(해외 담당)을 역임했다. /뉴스

김중희, “정부 중장기 가뭄대책을”

국민의당 가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중희 의원(김제부안)은 22일 열린 당내 원내정책회의에서 “가뭄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발생이 빈번한 이때, 정부가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가뭄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 눈앞의 가뭄피해를 최소화 하는 대응방안과 피해능가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정부가 보다 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선 가뭄피해지역에 있는 논을 대상으로 하는 쌀생산조정제 실시와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실효성을 높이고, 하부밸리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가뭄이 극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인공강우기술 개발, 해수담수화시설개발, 댐과 저수지의 저수량 적정관리를 적극 추진하는 등 가뭄을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김완주, “LH 유치무산과 삼성투자 연관성 없다”

삼성 조사특위에서 입장 밝혀... “새만금투자협약은 삼성과 중앙부처가 진행한 것”

김완주 전 전북도지사는 22일 ‘전북도의 회 삼성그룹 새만금투자 무산 진상규명과 투자협약(MOU) 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완주 전 지사는 이날 “삼성의 그린에너지 투자협약에 대한 진정성과 글로벌 기업으로 신뢰가 있는 삼성을 믿었고, 지금도 그 진정성을 믿는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삼성의 투자유치 추진이 그 당시에는 잘 됐는데, 현 집행부의 관리 부실이냐는 이호근 도의원의 질문에 “삼성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도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소극적일지라도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마음을 얻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삼성의 투자유치 협약에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등 일부만 참여, 비밀리에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투자유치

를 반드시 관철하는 것이 중요해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하지는 취지가 있었지만 보안에 부칠 필요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삼성 투자유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북혁신도시 유치 실패에 따른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도지사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그린에너지를 선택한 삼성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350만명의 광대한 사업부지를 얻을 수 있는 새만금을 적지로 꼽았다”면서 삼성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새만금 투자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전북으로 배치될 예정인 LH가 경남에 배치되는 등 정치적 갈등이 있었지만, 이런 갈등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 협약식임에도 당시

이건희 회장이나 국무총리 등 최고위층이 참석하지 않고 협약식도 5분 만에 끝난 것에 대해 “이 회장은 동계올림픽 유치 건으로 바빴고 총리도 일정이 맞지 않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새만금투자협약은 삼성과 중앙부처가 협의를 거쳐 진행한 것이어서 세세한 것은 잘 모른다”고 부인했다.

한편, 삼성은 2011년 전북도, 국무총리실 등과 새만금에 7조 6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아무런 계획을 밝히지 않다가 5년이 지난 작년에서야 투자 포기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지난 2월 9명의 위원으로 삼성의 투자 무산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6개월 일정으로 삼성이 새만금투자를 결정한 배경과 투자협약·철회 과정 조사 중이다./김진성 기자

이용호 의원-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립대 서남대 인수 공동 노력키로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인수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이 의원은 21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서울시 간부, 시립대 관계자 등이 배석한 가운데 박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박 시장은 “서남대 인수에 대해 오늘 처음으로 종합보고를 받았다”며, “시립대의 서남대 인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 기초실장을 팀장으로 TF를 꾸렸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와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의원과 사무실에서 원운희 서울시립대 총장을 만나 서남대 인수 추진현황을 듣는 등 인수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이 의원과 원 총장은 서남대 문제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정상화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용호 의원은 “박 시장, 원 총장과의 소통을 통해 서남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교육부를 통해 정상화 진행 과정을 꾸준히 점검 중이며, 빠른 시일 내 교육부 차관을 만나고, 새로 임명될 장관과도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울영상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남원시